

삼 위 일 체 주 일

THE WORSHIP SERVICE OF TRINITY SUNDAY

주후 2020년 6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Hymn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새19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3 번 시편(Psalm) 98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	--	--------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로마서 (Romans) 12:5-13	신 응 집사
-------------------------	-----------------------------	--------

설 교 Sermon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The People Living in the Holy Spirit)	김일선 목사
------------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

*찬 송 Hymn	174 장 “성령의 은사를” (새 196)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금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 우리는 침묵했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진정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85:10-1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글개역 롬 12:9)

“Love must be sincere. Hate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NIV Romans 12: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7 (주일)	6/8 (월)	6/9 (화)	6/10 (수)	6/11 (목)	6/12 (금)	6/13 (토)
	신12	신13,14	신15	신16	신17	신18	신19
본문	시97-98	시99-101	시102	시103	시104	시105	시106
	사40	사41	사42	사43	사44	사45	사46
	계10	계11	계12	계13	계14	계15	계16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6/10수 오후7:30)

“여호와의 멸시한 사람들” (민 16:16-31)

지난 주일(5/31) 말씀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히 10:1-18)

오늘은 일명 ‘교회의 시작’으로 불리는 ‘성령강림절(Pentecost Sunday)’이며, 오늘 본문(고전12장)은 오랫동안 교회가 성령강림절에 읽어온 성서일과(Lectionary)의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본문에서 말하신 ‘신령한 것은 (한 마디로) 영적 은사(Spiritual Gifts)’를 의미하며, 이는 교회로 부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할 중요한 내용으로서, 세 개의 키워드(Key Words) - ‘불(Fire)’ ‘바람(Wind)’ ‘호흡(숨, Breathe)’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첫째, (성령강림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교회로 부름 받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밝히 드러내는 ‘불’과 같은 존재이어야 하며, 2)둘째, 차별과 단절과 소외와 억압이 난무한 세상에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자유함과 일치를 보여주어야 하며, 3)셋째, 한 성령으로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호흡)을 담아내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Living Being)’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호흡)을 담아내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오늘 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호흡’과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 칠후같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며, 차별과 단절을 뛰어넘으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